한국어문장의 이해01

조윤경

BUFS 부산외국어대학교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

문장의 구조 2

절(節) :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절을 이룬다.

- 주어와 서술어가 있지만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더 큰 문장 안에 포함되어 문장의 일부분으로 사용된다.

  -나는 철수가 범인임을 알고 있었다. (주어: 주어, 서술어: 범인이다)

• 절의 종류

종류	형식	예문
명사절	문장 + 명사형 어미 (-(으)ㅁ , -기)	나는 그가 돌아오기를 바란다.
서술절	이중주어문의 뒷부분	영희는 키가 작다.
관형절	문장 + 관형사형 어미 (-(으)ㄴ , -는 , -(으)ㄹ , -던)	어제 먹은 빵이 맛있었다.
부사절	문장 + 부사형 어미 (-이)	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.
인용절	인용문장 + 인용 조사 (-고, -라고)	친구가 빨리 가자고 했다.

문장 : 화자의 생각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단위

- 하나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집합이며 5가지 기본 문형으로 나타난다.

주어 + 서술어	**아이가 웃는다.**
주어 + 부사어 + 서술어	철수가 침대에 누웠다.
주어 + 목적어 + 서술어	나는 민수를 많이 좋아한다.
주어 + 보어 + 서술어	영희가 내년에 대학생이 된다.
주어 + 목적어 + 부사어 + 서술어	할아버지께서 인형을 동생에게 주셨다.

3) 기본 문형

한국어는 다섯 가지 기본 문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.

①	**주어 + 서술어**	**바람이 분다.** **바다가 아름답다.**
②	주어 + 부사어 + 서술어	철수가 집에 간다.
③	주어 + 목적어 + 서술어	엄마는 아이를 기다린다. 나는 너를 사랑한다.
④	주어 + 보어 +서술어	철수는 선생님이 되었다. 그는 대학생이 아니다.
⑤	주어 + 목적어 + 부사어 + 서술어	아빠는 아들을영재로 생각한다. 나는 그 선물을 영희에게 주었다.

2. 겹문장 :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.

나는 그가 우리학교 학생임을 안다.
밥도 먹고 빵도 먹었다.

1) 안은 문장 : 홑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포함하는 문장을 말한다.
(안은 문장에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홑문장은 안긴 문장이다)

안은 문장	**명사절을 안은 문장: '-(으)ㅁ , -기 , -(으)ㄴ/-는/-(으)ㄹ/-던 것'**
	관형절을 안은 문장 : -(으)ㄴ , -는 , -(으)ㄹ , -던'
	부사절을 안은 문장 : 절 전체가 부사어가 되어서 서술어를 수식
	서술절을 안은 문장 : 절 전체가 서술어 기능을 함
	인용절을 안은 문장 : 부사격 조사 '-고 , -라고'

(1) 명사절을 안은 문장

- '-(으)ㅁ . -기 , -(으)ㄴ/-는/-(으)ㄹ/-던 것 ' 을 붙여서 만든다.

〈예〉 나는 그가 우리학교 학생임을 안다.

많은 사람들이 그가 합격하기를 바라고 있다.

나는 주말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.

- 명사절에 격조사가 붙어서 주어 , 목적어 ,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.

〈예〉 수학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. (주어)

사람들은 비가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. (목적어)

그가 내 옆에 있음에 나는 감사한다. (부사어)

* 명사형 어미 '-기' 와 '-(으)ㅁ' 의 차이

-기	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: '-기' + 바라다 , 두렵다 , 결심하다 , 기원하다 , 약속하다 〈예〉 나는 내일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다.
	② 일반적인 사실을 표현할 때,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다짐 〈예〉 7시: 일어나기, 8시: 아침먹기, 9시~11시: 복습하기
-(으)ㅁ	① 이미 일어난 일 : '-(으)ㅁ' + 알다, 깨닫다, 후회하다 〈예〉 나는 그가 이미 도착했음을 알고 있다.
	② 현재의 사실을 기술할 때 〈예〉 아르바이트생 구함, 자리비움, 대화 상대 없음

(2) 관형절을 안은 문장

- -(으)ㄴ , -는 , -(으)ㄹ , -던‘ 을 붙여서 만들며 시제를 나타낸다.

〈예〉 어제 먹은 빵은 정말 맛있었다. (과거)

지금 학교에 가는 사람이 철수이다. (현재)

이것은 내일까지 할 일이다. (미래)

나는 친구에게 내가 읽던 책을 빌려 주었다. (과거의 미완결)

(3) 부사절을 안은 문장

- ‘-이’ , ‘게‘ , ‘-도록‘ , ‘-어서‘ 등을 붙여서 만든다.

〈예〉 그 사람은 이유 없이 화를 냈다.

김치가 맛이 있게 익었다.

나는 친구와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.

길이 비가 와서 질다.

(4) 서술절을 안은 문장

- 절 전체가 서술어 기능을 하며 , 서술절을 안은 문장은 주어가 두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.

<예> 동생은 키가 크다.

선생님은 아들이 두 명 있다.

(5) 인용절을 안은 문장

- 부사격 조사 '-고 , -라고' 등과 같이 결합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사용된다.

〈예〉 선생님이 내일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다. (간접 인용 + '-고'

철수는 "내일 서울에 갈 거야" 라고 말했다. (직접 인용 + '-라고')